

조합원 여러분, 행복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올해는 전년과 달리 모든사업장이 추석전 교섭이 마무리 되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3년 임,단협 투쟁에 지부를 중심으로 투쟁지침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복무하신 조합원동지들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반민중 정부임을 자임하며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노동자,민중의 삶을 내팽개치면서 개인들의 이익만을 찾아가며 노동자,민중의 피눈물 나는 삶은 전혀 관심이 없으며 이태원 참사,오송 참사 등 국가 재난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일본 핵 오염수방류도 굴욕적 외교로 국민의 생명과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내다 버렸습니다. 이런 미친 망나니 정부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이러한 무능한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민주노총(금속노조) 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서부터 지금까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부터 나아가 민중들의 삶을 지키는 모든 투쟁을 위하여 싸워왔습니다. 투쟁하는 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난 투쟁의 역사가 그랬듯이 끝내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갑시다.

작년 ‘이대로 살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외치며 0.3평 철감옥 안에서 외쳤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절규에 금속노조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여 어렵게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못한 채,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과 죽음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의 하반기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투쟁에 총력투쟁으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경주지부 조합원 동지여러분!

추석휴가 이후에 본격적인 민주노총,금속노조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동시선거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부는 선관위를 중심으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여, 선거가 조직의 내부적 갈등이 아닌 축제의 장이 될수 있도록 지부장으로서 최선의 노력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짧지만 잠시 일상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추석 가족,친지들과 따뜻한 정 많이 나누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뵈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올림